

(별지) 2005나84701

증인 배형주 신문사항

1. 증인은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졸업생(학번 8940924)으로서, 재학 당시 수학과 교수이던 원고 김명호 교수의 강의를 직접 수강한 사실이 있지요.

(을제9호증의 9를 제시)

2. 이것은 증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가 맞는가요.

2-1. 증인이 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고, 언제 작성하였나요.

2-2. 위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명호 교수는 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심한 말씀을 하셨고 실례로 횡단보도에 갈 때 차가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으면 “도끼로 잘라버리고 싶다”라고 서슴없이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당시 원고 김명호 교수가 하였다는 위 말을 한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이고, 언제 그와 같은 말을 하던가요.

2-3. 또한 원고 김명호 교수는 동료교수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분이 배운 것은 모두 필요 없으니 다시 나한테 배우야 한다”고 말하면서 무시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동료교수를 비방하는 말을 언제, 어디에서 들었나요.

2-4. 증인은 1995. 11. 3. 제4차 교원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의 강의시간 중 욕설 및 타 교수 비방사례에 대해 증언한 사실이 있지요.

3. 증인은 4학년이던 95학년도 1학기에 졸업을 위한 전공필수과목인 원고 김명호 교수의 위상수학1을 수강한 사실이 있지요.!

3-1. 위 과목에서 증인을 비롯한 29명의 수강생들이 낙제점수(F학점)를 받았고, 이 때문에 그 중 4학년생들은 졸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요.

3-2. 그러자 당시 원고 김명호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학과 교수들이 교수 회의를 열어 위 4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보충강의 등의 방법을 마련해 줄 것을 총장에게 청원하였지요.

3-3. 이에 학교 측은 하계강좌로 위상수학1을 별도 개설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도록 조치하였고, 증인도 위 과목을 수강하여 겨우 졸업할 수 있었지요.

3-4. 당시 수강생 중 29명이나 F학점을 받게 된 데에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가요.

4. 기타 신문사항

증인 배형주 추가신문사항

3-4. 당시 수강생 중 29명이나 F학점을 받게 된 것은 증인을 비롯한 수강생들이 열띤 논쟁을 벌인 끝에 위 과목의 학기말 시험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으고 백지답안지를 제출하였기 때문이지요.

3-5. 그 이유는 원고 김명호 교수가 ① 학기말 고사가 실시되기도 전에 수업시간 중에 5명 정도는 무조건 F를 주어 졸업을 안 시키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여 누군가가 어차피 희생되어야 한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② 수업시간에 교생실습 나간 학생들을 비하하고 의도적으로 교생실습간에 강의한 내용을 중간고사 시험문제로 출제하여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③ 학과의 원로교수 및 동료교수들을 비방하고 본교 대학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는 등 비교육적이고 주위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④ 수년간 공개적으로 학생들을 무시하고 무원칙한 성적부과로 교수로서의 신뢰감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런 분은 더 이상 강의를 못하게 하는 것이 학교와 후배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위와 같이 시험을 거부하고 백지답안지를 내게 된 것이지요.

3-6. 이와 같이 집단으로 시험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은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쯤이고, 증인은 어떤 경위로 이에 동참하게 되었는가요.

4. 기타 신문사항